10.15686/fkl.2018..44.371

자료발굴-

강경애의 『인간문제』 신문연재 검열 삭제 자료 발굴

서정자*

최근 완간된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와세다대 명예교수 저작집 여섯 권(앨범 포함)에 강경애의 『인간문제』번역 관련 글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10여 년 전 주신 발굴 자료가 문득 생각났다. 강경애의 연구가 저작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자료를 여태 가지고만 있었던 나의 탓이 아닐까, 무척 당황했다. 2007년 니가타에 갔을 때였는데 니가타현립대 하타노세츠코교수와 야마다요시코교수가 과분하게도 한국문학연구프로젝트에 초청해주어 참여하게 되었지만 처음 뵙는 오무라 교수님이 강경애의 『인간문제』 번역본에 사인을 해 건네주시고 검열 삭제 부분 복원자료를 주실 때 그 자료를 그저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주셨거니 만 생각했다. 2005년 내가 책임 편집한 범우비평판 한국문학 24-1 강경애편 『인간문제』(외)를 참고도서로 넣어주신 것만 다행스럽게 생각했었다. 윤동주연구를 비롯 평생을 한국문학을 사랑하여 연구해온 오무라 교수가 직접 번역한 강경애의 『인간문제』 출간은 실로 대단한 의의가 있었던 것이나 나는 그것을 알아 볼 눈이 없었다. 게다가 강경애의 『인간문제』가 일본에서 처음 번역되어 나온 2006년은 강경애 탄생 백년의 해였다. 당시 한국에서도 탄생백년학술대회가 열렸던 것으로 검색이 되는데 일본에서 강경애의 『인간문제』가 번역되어 나왔다는 사실이 한국에 보도된 것은 2007년 이후인 것 같다. 오무라 교수는 번역서 『인간문제』(平凡社, 2006.5.24.)를 출간한

* 초당대학교 명예교수

뒤인 2006년 7월23일 도쿄 와세다대 조선문화연구회 정기발표회에서 「강경애의 『인간문제』판본비교」를 발표하고 8월6일 연변대 『디아스포라의 조상』에 이 논문을 연구보고로 실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문학 번역 상황을 다룬 논문에서 많은 번역 작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였고 판본 비교나 발굴자료 공개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검열 삭제된 자료를 공개하려고 오무라 교수 역, 강경애의 『인간문제』 해설을 비롯하여 자료를 찾아 읽어보니 나의 학문하는 자세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무엇보다 당시 나는 오무라 교수의 『인간문제』 해설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둘째, 나보다 권위 있는 전문가가 있으니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자신감의 결여도 문제였다. 셋째는 게으름이다. 너무 늦은 것을 반성하며 『동아일보』1934년 8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연재된 강경애의 『인간문제』에서 검열로 삭제된 부분의 복원자료를 공개한다.

오무라 교수는 해설에서 이 비삭제판 신문을 구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경찰월보』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선의 출판물 중에 일본의 검열에 걸린 부분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인간문제』 106회와 114회의 일부가 거기 들어 있다. 그러나 106회의 23행과 114회의 13행은 다행히도 검열에서 삭제되었을 부분이 남아 있는 『동아일보』를 찾을 수 있었다. 아마도 신문의 조판(일찍 나온)에는 게재되고 지판(遲版 · 늦게 나온 판)에서는 삭제된 것이 아닌가 싶다. 106회의 삭제판과 비 삭제판 두 종류의 마이크로 필름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글의 말미에서 오무라 교수는 이 자료 찾기를 호테이토시히로(布袋敏博) 와세다교수가 도와주었다고 했다.[1] 106회 등 검열 삭제부분은 창비에서 나온 『인간문제』를 비롯하여 나의 범우비평판에서도 삭제된 채 출간되어있다.

오무라 교수가 번역한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조선근대문학선집간행

1) 오무라 마스오 역, 강경애 『인간문제』 해설, 平凡社, 2006, 380쪽.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 중편을 번역 출판하기 시작한 조선근대문학선집 제1기 4권 중 둘째작품이다. 첫째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 둘째가 강경애의 『인간문제』 로 강경애의 『인간문제』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셋째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그리고 네 번째가 채만식의 『태평천하』 이다. 오무라 교수는 강경애가 28세 때 쓴 이 작품은 넓은 의미에서 카프문학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라고 하면서 "『인간문제』는 조선이 낳은 최고의 문학적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많은 문학작품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슬로건만 휘두르는 경향이 강했던 데 비해 농촌과 도시의 곤궁한 생활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상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학이념을 달리하는 한국과 북한이 한결같이 『인간문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2] 라고 하였다. 오무라 교수가 번역을 하면서 참고한 한국의『인간문제』단행본은 다음과 같다.[3]

1. 『에버그린한국문학전집 17』, 1986년 양우당, 해설 김윤식(金允植)
2. 『열사람 문학신서 2』, 도서출판 열사람 1988, 해설 임헌영(任軒永)
3.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2』, 태학사, 1988, 동아일보연재 복간
4. 『창비교양문고 22』, 창작과 비평사, 1992, 해설 이상경(李相瓊)
5. 『한국소설문학대계 17』, 동아출판사, 1995, 해설 김재용(金在湧)
6.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1999, 해설 이상경(李相瓊)
7. 이선영 등 『21C POWER ELITE PRACTICAL WRITING 47』 중앙교육자료연구소, 1999
8. 『범우비평판한국문학24-1』, 범우도서(종합)출판, 2005, 해설 서정자(徐正子)

강경애의 작품 중 검열로 지워져 안타까운 예의 하나가 중편소설 「소

2) 오무라 마스오, 「남북을 넘어 평가받는 『인간문제』」, 홋가이도신문 2004.12.7., 『한일상호 이해의 길』, 오무라 마스오저작집 5, 소명출판, 2017, 55~56쪽.
3) 오무라 마스오 역, 강경애 『인간문제』 해설, 平凡社, 2006, 377~378쪽.

금」인데 마지막 부분을 한 권 한 권 검은 물감으로 지워 판독불능이라 작품 전체의 파악에 크게 지장을 주어왔다. 2006년 한만수교수가 '국과수'의 도움을 받아 과학적으로 복원 해독하는 등 일제식민지하 검열로 인한 삭제와 복원문제는 문학연구에서 중요한 숙제가 되어왔다. 무엇보다도 문학연구에서 정본확정을 중요시하는 오무라 교수가 『인간문제』의 검열로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윤동주가 시 「별 헤는 밤」을 썼을 때에는 화룡현립소학교 고등과에서 1년간 중국어를 공부했던 시절을 떠올렸음에 틀림없다며 이때 윤동주에게 중국어 발음이 귀에 맴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자로 쓰인 패, 경, 옥은 패이, 징 위, 로, 일본어로 읽었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라이넬 마리아~로 적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은 그의 엄숙한 학문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예의 하나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106회 검열로 삭제된 부분의 원본은 실은 이미 공개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인간문제』의 판본문제가 있다. 나는 2005년 범우비평판 한국문학 강경애편을 책임편집하면서 『인간문제』의 판본을 문제 삼았다. 이상경교수가 『강경애전집』(1999, 소명출판, 수정증보 2002)을 내면서 『인간문제』를 신문연재원본이 아니라 북한에서 출간한 1949년판을 수록했기 때문이다. 이 전집의 『인간문제』에는 106회의 검열삭제부분이 오롯이 살아 실려 있다. 그러나 이 판본이 많은 부분 수정되어있었으므로 삭제된 부분이 실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본과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또는 그대로인지 원본이 없으니 대조할 수가 없어 나는 해설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북한에서 출판한 『인간문제』는 노동신문사 부주필이었던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이 강경애가 단행본으로 내기 위해 스크랩해 두었던 『인간문제』 연재본을 가지고 있다가 노동신문사에서 출간했으리라 추정하는데 이 판본은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있다. 오무라 교수는 "일본의 지배하라는 제약 아래에서 창작 발표된 작품을 본인 사후에 게다가 일본의 검열이 없는 해방 후에 개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신문 연재와 이 (북한판의)단행본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특히 11회, 45회-49회, 59회, 116회는 이야기 줄거리까지 다를 정도이다. 예를 들면 49회에서 빈농인 주인공 첫째와 그 어머니가 둘 다 굶주려 음식 때문에 어머니를 발로 차는 장면이 있는데, 공화국(북한) 1949년판에서는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개작되어 있다. 또 116회에서 신철이 옥중에서 고뇌하다 전향을 결심하는 장면이 그대로 빠져 있다. 긍정적 인물은 더더욱 긍정적으로, 부정적 인물은 더더욱 부정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라고 북한판의 판본이 강경애 『인간문제』의 정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지적은 나의 범우사판 『인간문제』(외)의 해설과 같은 입장이었으므로 오무라 교수가 검열 삭제된 신문연재본과 삭제되지 않은 신문 연재 본 복사물을 나에게 주셨던 것이다. 오무라 교수는 자료를 주시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번에 오무라 교수님은 자료를 한 사람 이외에 주시는 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자료공개의 기회를 그 한사람에게 양보하신 것이다. 늦게야 자료를 이곳에 공개하며 마음이 거듭 송구하다.

검열로 삭제된 『동아일보』 연재 『인간문제』의 1934년 12월6일자 106회의 삭제 전 본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삭제되기 전 깎인 부분의 전문이다.

인간문제 106회 검열 삭제 전 원 자료

"이애 지금 정미소 여공들은 무섭다더라. 저희들끼리 사이렌을 울리고 막 폭행을 하는데 야단이더래!"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하며 첫째를 돌아보았다. 첫째는 상대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런데 우리두 말이다. 우리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저 이게거던. 알아있어."

4) 오무라 마스오 역, 강경애 『인간문제』 해설, 平凡社, 2006, 378쪽.

주먹을 불끈 쥐고 첫째를 향하여 겨눈다. 첫째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껌뻑 하였다. 그때 저리로부터 정복순사들이 우루루 밀려왔다. 그래서 한패는 해륙운수사무실을 에워싸고 한패는 이리로 달려와서 군중을 경계하였다. 그들은 경관들을 보자 어떤 반항의 불길이 욱하고 치밀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무실에 들어간 동무들이 무슨 소식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답답한 대로 참아야 할 것 같아 꾹 참고 있었다. (복사 자료 사진 1,2., 『동아일보』 1934.12.6. 석간 참조)

107회의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오무라 교수가 번역에서 "……중략(검열 때문에 14행정도 삭제인지-역자)"라고 해서 신문사 측에서 미리 중략 처리한 것으로 보았다. 이상경편의 『강경애전집』 『인간문제』에서는 '……'으로 처리되어있다. 그러니까 중략으로 처리된 부분은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4회의 경우는 범우 비평판을 비롯하여 복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신 듯하다.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남한에서도 변개(자구나 문장 등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줄거리가 바뀌는 것)[5] 출판이 이루어져 1970년 성음사 판 『한국장편문학대계』12권에 변개본이 실렸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잘못된 텍스트로 연구를 진행한 불행한 일이 있었다. 필자도 그 피해자 중의 하나이다.[6] 이 작업은 북한의 개작작업을 의식하여 기획된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이 변개작업에 참가한 교수를 만나본 적이 있다. 그는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교수로 임직해있었다. 『인간문제』신문연재원본을 한국문학전집에 처음 실은 이는 문학평론가 장문평으로, 삼성출판사 제2편집장으로 재직하던 때 삼성판 한국문학전집을 기획하면서 작가 한 사람(나중에 지인이 작가 김문수라고 알려줌)이 『인간문제』가 변개된 사실을 지적해주어 신문연재원본을 찾아 다시 조판하였다고 한다. 『인간문제』원본은 그렇게

5) 서정자, 「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방식」, 『범우비평판한국문학24-1』, 종합출판 범우(주), 2005, 537쪽.

6) 서정자, 「강경애연구」, 『원우론총』 제1집, 숙대대학원원우회, 1983. 87년 박사논문에서 이를 수정했다.

하여 91회와 116회 등 일부 누락이 있었지만 1978년『삼성판 한국문학전집』⑫에 최초로 복원되어 실리게 되었다.[7] "북한의『인간문제』개작은 1949년 노동신문사의 판본 이래 1959년『현대조선문학선집』제14권, 1986년『현대조선문학선집』제30권, 1994년 문학예술출판사간『인간문제』등이 있는데 5,6행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은 1949년판에 의거하고 그 일부를 삭제한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인간문제』는 점점 '혁명적' '투쟁적'이 되어"것이다.[8] 이렇듯『인간문제』는 검열과 삭제만이 아니라 원본이 훼손되는 숱한 시련을 겪어 나왔다. 그런 점에서 강경애의『인간문제』의 원본을 신문 연재본으로 확정하고 완전하게 복원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오무라 마스오 교수의 강경애『인간문제』일본 최초의 번역과 검열삭제부분의 복원작업에 재삼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리며 더불어 강경애의 고향인 북한의 송화와 장연을 방문한 학자로부터 전해 받은 강경애의 묘비 사진을 함께 공개하게 도와주신데 대하여도 한국문학연구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복사자료 사진 1. 검열로 삭제된 106회 12월6일자 석간신문
2. 삭제되지 않은 106회 12월6일자 석간신문.

사진자료 1. 장연의 강경애 비석 사진 정면, 비석 상단에 별이 새겨있고 강경애의 묘라 새겨 있다. 비석 곳곳에 한국전쟁의 상흔인 기관총 자국이 나있다.
2. 강경애 비석 사진 한쪽 옆면에는『인간문제』를 비롯하여 강경애의 작품 11편의 제목이 새겨있으며 다른 한쪽 옆면에는 이기영 임순득 등, 비를 세운 이들의 이름이 새겨있다.
3. 강경애 비석 사진 뒷면. 강경애의 시「산딸기」가 새겨있다.
4. 장연의 원소 사진 1.

7) 서정자,「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방식」, 앞의 책, 537쪽.
8) 오무라 마스오, 앞의 책, 379쪽.

5. 장연의 원소 사진 2. 양어장 모습. 원소가 무지개송어 잉어 메기 등을 키우는 양어장이 되어있고 음료수의 수원으로도 사용되며 작은 발전소까지 만들어져있다.
6. 장연의 강경애 묘에서 바라보이는 고향 송화 쪽 경관
7. 오무라 마스오 교수 역 강경애의『인간문제』표지

복사자료 사진 1. 검열로 삭제된 106회 12월6일자 석간신문


新春文藝懸賞募集

東亞日報社學藝部

人間問題

복사자료 사진 2. 삭제되지 않은 106회 12월6일자 석간신문.


新春文藝懸賞募集

東亞日報社學藝部

人間問題

사진자료 1. 장연의 강경애 비석 사진 정면, 비석 상단에 별이 새겨있고 강경애의 묘라 새겨 있다.

비석 곳곳에 한국전쟁의 상흔인 기관총 자국이 나있다.



2. 강경애 비석 사진 한쪽 옆면에는『인간문제』를 비롯하여 강경애의 작품 11편의 제목이 새겨있으며 다른 한쪽 옆면에는 이기영 임순득 등, 비를 세운 이들의 이름이 새겨있다.



3. 강경애 비석 사진 뒷면. 강경애의 시 「산딸기」가 새겨있다.



4. 장연의 원소 사진 1.



5. 장연의 원소 사진 2. 양어장 모습. 원소가 무지개송어 잉어 메기 등을 키우는 양어장이 되어있고 음료수의 수원으로도 사용되며 작은 발전소까지 만들어져있다.



6. 장연의 강경애 묘에서 바라보이는 고향 송화 쪽 경관



7. 오무라 마스오 교수 역, 강경애의『인간문제』(일본 평범사간, 2006)표 지

